



단 결 과 연 대 로 책 임 지 는 경 주 지 부 !

경주지부 집단교섭 속보 21호

발행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지부장 정진홍 | 전화 054-748-3223 | 팩스 054-773-9270 | 인터넷 gj.kmwu.kr | 발행일 2026.09.17(목)

4개 사업장 의견접근... 세진은 수용거부

신뢰 회복이 교섭의 출발, 같은 갈등은 반복하지 말아야



금속노조 경주지부 제21차 집단교섭이 9월 17일(목) 9시, 지부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현대아이에이치엘 사측의 요청으로 개최된 이번 교섭은 노측 경주지부 정진홍 지부장 외 18명, 사측 우영산업 김대근 본부장 외 12명이 참석했다. 경주지부 박인룡 총무부장 사회로 교섭 성원을 확인하고 교섭에 들어갔다.

교섭대표 모두발언에서 우영산업 김대근 노사상생본부장은 “매일 이어지는 교섭으로 교섭위원들이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며 “올해는 의견접근안이 총회에서 부결되는 사업장이 많다. 제조업이 어려운 현실도 있는 만큼 노·사가 상호 노력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주지부 정진홍 지부장은 “어제부로 발레오만도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보충교섭을 마무리했다”며 “발레오 사측이 전쟁을 원한다면 전쟁을 치러주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조합원의 기대치가 높아진 점은 부정하지 않

지만, 평소 사측의 소통과 신뢰가 조합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며 “신뢰가 있으면 의견접근안이 부족하더라도 승인하지만, 불신이 쌓이면 제시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만큼 노·사 모두 돌아보고, 내년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스와 세진, 에코플라스틱, 현대성우솔라이트, 현대아이에이치엘이 임금 제시안을 제출했다. 정진홍 지부장은 “현대아이에이치엘 제시안 검토를 위해 정회를 요청하겠다”며 나머지 4개 사업장은 제시안을 수용거부했다.

다스지회 임도형 지회장은 “지난번과 동일한 제시안을 다시 제출한 것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전체 조합원에 대한 사측의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섭을 마무리할 의지가 없다면 제시하지 말길 바란다”며 “노동조합은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9시 28분 속개된 교섭에서 현대아이에이엘지회 심상우

지회장은 “고객사 대응이 어렵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노동조합도 노·사 상생을 바라며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며 “실질임금이 부족한 만큼 시급을 중심으로 고민한다면 노동조합도 결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현대아이에이치엘 박기병 경영지원실장은 “요구를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회사가 제시할 수 있는 한계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에코플라스틱과 현대성우솔라이트, 현대아이에이치엘이 추가 제시안을 제출했다.

이에 정진홍 지부장은 “현대아이에이치엘 제시안은 검토를 위해 정회를 요청한다”며 “에코플라스틱과 현대성우솔라이트 제시안은 수용거부한다”라고 밝혔다.

10시 9분 속개된 교섭에서 정진홍 지부장은 “현대아이에이치엘은 의견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스, 에코플라스틱, 현대성우솔라이트가 추가 제시안을 제출했다. 다스 이동철 생산본부장은 북미 물량 클레임과 내부 어려움, 결품 발생 시 추가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제시안 검토를 요청했다.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김환철 지회장은 “모든 사업장이 어려운 상황이고, 솔라이트도 중동전쟁 상황이 있다”며 “하지만 사측이 마냥 어렵다고만 하면 답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회사가 어렵다고 하지만 노동자들은 그럼에도 착취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측은 고민의 시간을 더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현대성우솔라이트 제시안에 대해 수용거부 입장을 밝혔다.

정진홍 지부장은 “에코플라스틱도 수용거부”라며 “다스 제시안 검토를 위해 정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10시 45분 속개된 교섭에서 정진홍 지부장은 “다스는 의견접근 하겠다”며 “잘 마무리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성우솔라이트 신창호 전무는 회사의 적자 상황을 설명하며 최선을 다한 제시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진홍 지부장은 “노·사 교섭의 정해진 룰에 따라 노측 정회는 더 이상 없다”며 “바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세진, 에코플라스틱, 현대성우솔라이트가 추가 제시안을 제출했다. 정진홍 지부장은 “현대성우솔라이트는 의견접근 하겠다”며 “솔라이트의 어려운 상황은 알고 있지만 노동조합도 무조건 거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세진과 에코플라스틱은 수용거부”라고 말했다.

에코플라스틱 사측은 여러 사업장이 의견접근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다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사측 요청으로 정회에 들어갔다.

11시 49분 속개된 교섭에서 에코플라스틱은 재차 제시안을 제출했다. 이에 금속노조 경주지부 정진홍 지부장은 “에코플라스틱은 의견접근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추가 발언이 없음을 확인하고 11시 51분 제21차 지부집단교섭을 마무리했으며, 차기 제22차 교섭 일정은 노·사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 경주지부 2026년 제21차 지부집단교섭 현장사진

